

□ 90년대 대중문화에 역공 당하는 대학문화

소비하지 않는 자 살아남지 못한다

김용섭
(중양대 문예창작 4)

'대학'이라는 공간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고도화 될수록 '대학'이라는 공간의 자본주의화, 혹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으며, 어쩌면 그런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현상의 중심에 1998년의 대학들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이제 대학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대학 바깥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대학을 공략하기 위한 상업주의(문화) 상품 소비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상품소비의 타겟된 대학

그래서 이제 대학가 앞에는 서점보다 빼빼나 핸드폰을 파는 통신업체 대리점이 더 많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 보는 면접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물 좋은 나이트가 어디인가요?'라든지, '노래방에 가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따위를 묻는다. 최신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묻는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비릿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고유한 의미의 대학문화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은 문화적 공간이라기 보다는 소비적 공간이며, 비생산적 공간이다. 그런데 취직을 하려면 억지로라도 이 소비적이며 비생산적인 공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들 '대학문화'라고 말했

을 때, 그 단어는 젊고 비판적이며 동시에 진보적인 느낌까지 풍긴다. 그것은 70년대의 청바지, 통기타, 장발로 대변되었던 대학문화에서 80년대의 운동권문화까지, 그러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의 대학문화는 젊으나 소비문화에 무력하며, 동시에 비판적 이거나 진보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왜 90년대의 대학문화는 이렇게 변한 것일까? 90년대 초의 대학문화를 지칭하던 몇 개의 단어를 좀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단어가 '신세대'일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대학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대학 바깥에서 만들어진 단어였으며, 또한 그 단어는 학문적, 혹은 이론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상업 광고이나 상업 저널들에 의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난 신세대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하였지만, 그 항변들은 상업 광고들에 의해 철저히 묵살당했다. 즉, '신세대'란 구세대대를 비판하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세대가 아니라, 과격하게 말하자면 '신세대' 딱지를 붙인 새로운 상품들을 저절적으로 소비하는 세대를 뜻하는 것이 썩었다. 이제 문제는 소비하느냐 소비하지 않느냐 이지, 저항하느냐 저항하지 않느냐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물음 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1998년의 대학 문화의 불 문물

은 '소비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이다. 이 불문물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비 능력을 가져다 주는 '돈'은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 사회' 속에서 소비될 수 있는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을 요구하는 기업체에서는 소비 능력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학문화의 자율성 되찾아야

이러한 대학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오락, 레저 동아리나 어학 관련 동아리가 인기를 끌고 소비 적이지도 취직에 도움되지도 못하는 품물이나 이념 관련 동아리는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학점'이 대학 생활의 가치를 가능하는 한 척도가 되었으며, 전공 수업보다 '토익'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관심사는 '학점'과 '토익'이다. 그 어떤 것도 학점이나 토익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또한

학점과 토익 앞을 가로막고 저항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 남느냐 도태되느냐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제 대학생 정도라면 유행하는 악세사리와 의류를 알아야 하며, 최신 가요와 물 좋은 나이트클럽을, 그리고 방학이면 한 번쯤은 외국 땅을 밟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취직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대학 문화는 이전 대학 문화들이 지니고 있었던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 평범한 대학인의 머리 속에는 대중문화의 파편들과 상념들이 가득 차 있다



□ 강호의 생활을 통해 본 관성화된 대학생활

권태로운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강호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자, 수업 늦겠다."
중·고등학교부터 지겹게 들어온 말이다. 매일 아침마다 잠과 싸움을 시작하는 송강호군. 그래도 지금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 싫지는 않다. 지긋지긋한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울해 우리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당한(?) 대학생이 된 것이다.
신입생 O.T 때 송강호군은 무척 재미있었다. 처음으로 입에 댄 술과 담배, 그리고 선배들과의 정다운 얘기. 지금까지 억압 받았던 모든 것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대학에 들어 오길 정말 잘했다. 대학생활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야겠다. 내가 만약 대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대학생활이 왠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O.T를 다녀와서 첫 수업에 들어간 송군. 교

수업과의 만남. 그리고 첫 수업은 정말 흥미로웠다. 그렇게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낸다. 어느날 수업이 끝나자 과 친구들이 그를 붙잡는다. "강호야 당구 한 게임 치러 가자." "그래!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학교 앞 당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열심히 당구공과 전정(?)을 치른 후 친구들과 거리를 서성거린다. 빠리릭, 빠리릭. 강호에게 빼빼가 왔다. 학교앞 00술집으로 오라는 선배의 급한 호출. 친구들과 함께 술집으로 향한다.
술에 취해 분위기가 무르익어줄 쯤 "아! 송강호, 대학 생활 재미 있냐?"라는 질문을 한 선배가 갑작스럽게 던진다. "예? 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흥미롭고 좋아요. 선배들도 다 좋아보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 듣고, 공강 시간이 나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이

렇게 틀에 박힌 듯한 생활을 한 송강호군은 1학년과 마치고 2학년을 시작한다.
"자유롭다는 것 빼고는 고등학교 때와 다를 게 별로 없잖아. 내가 왜 그 고생하며 대학에 들어왔지?" 대학이라는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송군은 스스로의 고민에 빠진다. "자기 정체성? 대학의 이념은 과연 무엇일까? 어휴, 모르겠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 송군은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시험도 보는 등 미는 등 성적은 여지없이 학사경고를 면하지 못했다.
올해로 대학 다니지 3년째가 되는 송강호군. "이젠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대학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아." 연일 강행되는 수업,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기에 바쁘다. "아! 힘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1, 2학년 때 좀더 열심히 할걸. 미팅도 많이 해보

고, 동아리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자기가 눈을 감으며 새끼 때 모습을 생각해 본다. 정신없이 보내는 하루 하루가 너무 무의미하다. 자기를 뒤돌아 볼 시간도 없이 학점관리와 취업준비에 급급한 송강호군은 오늘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학생활 4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정열과 패기, 그리고 싱싱한 젊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쌓여가는 많은 욕심과 고민에 대학 4년을 송군처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다 같이 처음 대학에 입학했던 순수함과 패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남은 대학 생활을 충실하게 다시 시작합시다.
(김동혁 기자)

국제법무대학원

- 1998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

1.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학과명	모집인원
석사과정(야간)	국제통상법무학과	각 학과별 00명
	보험·해상법무학과	
	지적재산권법무학과	
	국제조세법무학과	
연구과정(야간)	석사과정과 동일	00명
국제법무지도자과정(야간)	석사과정과 동일	00명

2. 지원자격

과 정	자 격	비 고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8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다. 직장 재직 및 경력자, 학부성적 우수자	비법학계열 학사 학위소 지라도 지원할 수 있음
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석사과정과 동일
국제법무지도자과정	공·사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간부, 군인, 각급사회단체 임원, 중·소 기업체 대표 및 각계 지도자	학력제한 없음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전형일정

구분	석사, 연구과정	국제법무지도자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	'98. 5. 4(월) ~ 5. 14(목)	'98. 5. 4(월) ~ 6. 19(금)
전형일	'98. 5. 16(토) 14:00	'98. 6. 27(토) 14:00
합격자발표	'98. 5. 20(수) 14:00	'98. 6. 29(월) ~ 14:00
합격증교부 및 등록	'98. 5. 20(수) ~ 5. 27(수)	'98. 6. 29(월) ~ '98. 7. 10(금)

5. 제출서류

석사, 연구과정	국제법무지도자과정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학위등록번호 기재)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1통 마.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 바. 사진 3매(입학원서 불임용)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 다. 사진 3매(입학원서 불임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961-0904, 0905 팩스 961-9134

국제법무대학원

취업특강

경제학 원론 재개강

폐강되었던 경제학 원론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강합니다. 전문강사분의 명쾌한 강의로 진행될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1998년 5월 2일(토) ~ 6월 25일(목) 8주간
- 시간 : 목요일 오후 7시 ~ 10시
토요일 오후 4시 ~ 7시
- 대상 : 7급공무원, 공사, 일반취업 준비자
경제학 체계학습을 위한 모든 학생
교사임용고시 준비자
- 강사 : 소취영(서울대학교원 졸업, 前 아주대·전국대 강사,
신림동 한국고시학원 강사역임, 現 노량진 한국고시학
원강사)
- 수강료 : 30,000원
- 교재 : 현대 경제학원론(저자: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출판
사:박영사)
- 강의실 : 문리대 402
- 접수 : 학생회관 취업정보실

모의 TOEIC 시험공고

취업정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5월 모의 TOEIC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998년 5월 13일(수) 18:00 ~ 20:30
- 장소 : 법대 201강의실
- 준비물 : 컴퓨터용 연필 혹은 싸인펜
- 접수기간 : 5월1일(금)~5월13일(수)오전까지
- 접수처 : 취업정보실(학생회관 1층)
- 접수비 : 1,000원(본인 1,000 학교보조 1,000)

*자세한 문의는 취업실(961-0167~8)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토익 성적에 따라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취업정보실